

'익산관광, 코레일과 함께'

지역 관광 홍보... 익산역과 다각적 협업 정책 강화

익산시는 지역 관광 홍보를 위해 익산역과의 다각적인 협업 정책을 강화한다.

시는 한달 평균 2만여 명의 철도 이용객에게 익산역의 공간 특성을 활용해 대형 옥외광고를 실시했다.

익산역 건물의 벽면을 활용해 익산 4대 종교 투어를 할 수 있는 미륵사지, 원불교총부, 승탑사, 두동교회를 알리는 익산에 가면, 4대 종교 있고 ~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4대종교 문화체험' 타이포그래피 익산여행 투어는 많은 인기를 보이며 모든 일정 예약이 완료되었으며 높은 만족

도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상품이다.

또한 코레일과 익산역 협업 여행상품을 출시해 대중교통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왕복기차탐승권과 렌터카를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렌터카타고 떠나는 익산 OO Back 여행'과 기차탐승권과 순환형 시티투어 탐승권에 고스라 증식권이 포함된 '익산으로 떠나는 백제문화산책', '익산 가을소품' 상품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계절별, 테마별로 '익산

봄소품 상품패키지', 전통시장과 연계하는 '고백 익산 시티투어' 등이 기간에 맞춰 운영됐다.

이 밖에 코레일 여행센터와도 협업을 확장해 홍보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익산역에 관광캐릭터 마룻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가치를 이용한 상품 개발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호남의 대표 관문인 익산역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하여 효과 높은 마케팅 활동을 하겠다"라며 "코레일과 연계한 익산의 철도 관광상품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직원들과의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꾸준히 이어가며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통하는 시·티 군산'

강임준 시장, 정기 소통... 직장내 활력 끌어올려

강임준 군산시장이 직원들과의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꾸준히 이어가며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4일 시내 한 식당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며 진행된 '시장과의 직통 대화'에서는 올 한해 주요 축제를 추진했던 부서 직원들이 참석해 축제 진행에서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시장실에서 강 시장과 8·9급 직원들 간의 티타임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티타임에 참가한 직원들은 평소 시장에게 궁금했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시장님과 대화하기가 어려운 자리일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시장님이 우리를 편하게 대해주시어서 감사했다"며 "직원들이 활력있는 공직생활을 위해 이런 소통의

자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강 시장은 "평소 일반 직원들과 대면하여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소통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활기찬 군산시장이 되도록 시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시장과의 직통 대화'라는 행사를 통해 시장과 직원들간의 소통, 공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소통하는 시장님과 티(타임) 군산!'이라는 주제로 매월 입사 5년차 이하의 신규 공무원들과 시장실에서 티타임을 가지며 세대간 문화의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예정위 '집중'

허전 부시장, 국회 의원실 찾아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등 신규 핵심사업 집중 건의

허전 익산 부시장이 역대 최대액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집중 대응에 들어갔다.

허 부시장은 지난 15일 2024년 국가예산 주요 사업의 반영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실 관계자 등을 만나 막판 지원을 호소했다.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익산시 중점사업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대한 시기로 김수홍, 한병도 의원실들을 방문, 막판 전력을 경주했다.

이어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인 이원택, 이용호 의원실 및 정운천 의원실 등을 찾아 주요 핵심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허 부시장은 산재환자의 건강권과 지역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과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을 통한 대한민국 홀로그램 산업 성장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또한 단순 식품 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뛰어넘어 판매·홍보·체험·관광 기능을 갖춘 식품문화복합산업단지 역할을 위한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첨단식품기술 산업 발전 방안을 통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기반 기술

실증지원 사업 등 핵심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건의했다.

허 부시장은 "올해는 어느 해보다 정부의 재정재정기조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심 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회다단계 심의에 대비하여 지난 10월 말부터 전라북도과 함께 국회 상주권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 중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토종홍합 '참담치' 10만마리 옥도면 연도해역 방류

군산시는 자원 남획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토종홍합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15일 옥도면 연도해역에 참담치 치패 10만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참담치 치패는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인천수산연구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무상 분양받은 것으로, 우량 어미로부터 유생을 받아 약 6개월간 사육한 1cm 내외이며 전염병 검사 등을 마친 우량 치패다.

홍합과에 속하는 참담치는 조간대에서 수심 20m사이의 암초에 많이 서식한다. 껍질은 오각형에 가깝고 매우 두껍고 단단하며, 크기가 15~20cm로



진주담치에 비해 두배 이상 큰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홍합은 진주담치로 지중해에서 자라던 생물이 선박에 붙어 세계 각 지역으로 퍼졌으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들어와 양식으로 기르기 시작했다. 크기가 5~8cm

로 껍질이 얇고 보라색을 띠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해 찜뎀 등 대중요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참담치는 한국 연안과 중국 황해 연안, 일본 북태평양 연안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는 고부가 수산자원 신규품종 개발을 위해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참담치 인공치패를 3년간 생산하기로 협의했으며, 도서 해역을 대상으로 시험양식 개발에 나선 예정이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관내 해역에 참담치 방류는 처음으로 인천수산연구소와 적극적인 행정협의를 거쳐 방류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영양플러스 신규 대상자 수시모집 변경

군산시보건소가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임신부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영양 취약계층인 임신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실조, 위생태불량 등)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2023년도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가족 수 4인 기준 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5만3,999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16,161원 이하)의 만 6세 이하(7개월 이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이며 영양취약요인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취약요인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와는 달리 모든 대상자의 자부담을 폐지해 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사업 대상자의 참여 기간은 등록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대상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대상자들 중 중간평가를 통해 영양상태 문제가 해소된 경우 대상자 자격이 종료됐으나, 올해는 영양 취약요인이 사라져도 1년까지 대상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추가 확대 운영

익산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모바일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확대한다.

시는 익산유스호텔 등 20개소 50회선의 신규 공공와이파이 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구축하고, 공공와이파이 인터넷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 115곳 148회선과 익산시 전체 시내버스 164대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서비스에 이어 신규 50회선이 추가되면 총 360회선이 무료로 운영된다.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개인 휴대전화 무선네트워크 설정에서 'Public Wifi Free' 식별자(SSID)를 확인 접속해 기가급(Gbps) 속도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 제작·게시

익산시는 아동학대예방 기념 주간(11월19일~25일)을 맞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시는 이번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계기로 '특별 대신 긍정양육 실천해 보세요'란 주제로 작년에 이어 홍보영상을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익산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송출한다.

올해는 일상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을 돕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양육방법이 담긴 '긍정양육 129원칙'을 아동, 부모님의 목소리를 담아 제작했다.

'긍정양육 129원칙'은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기본전제(1가지)와 긍정양육은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2가지의 기본원리 및 9가지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